

# 성도의 밭<sup>11</sup>

1979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계시를 통하여 영원한 진리를 말씀 하셨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교리와 성약, 물몬경, 성경 그리고 값진 진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의 서문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

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계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였나니...”

이 계명과 또 다른 경전에는 인간이 충실히 따른다면 지상 생활을 안전하게 마치고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 줄 영원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주는 이 일을 기꺼이 모든 인간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 영원한 진리

매리온 지 름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이는 내가 사람을 의모로 취하지 아니하는…자인 연고라…”(교리와 성약 1 : 34-35)

주님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는 이유를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하시는 이유는 인간들이 자기 이웃의 훈계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신앙이 땅에 증가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저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며 알게 하기 위함이요, 지혜를 구하였으매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이요, 죄를 지었으매 회개하기 위하여 징계받게 하려 함이요, 결손하였으매 강하게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받게 하며 때때로 지식을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교성 1 : 21, 25-28 참조)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도 이러한 계시된 진리를 생활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이러한 영원한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간증에 기초를 두고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기 위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우리 자신을 재헌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의 표준을 낮추려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참뜻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며,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를 무시하도록 권고하고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악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항상 검토하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성공적

으로 이러한 악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 1차 세계 대전 동안 조셉 에프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가능하다면 나의 지침으로 계시로 밝혀진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로지 내가 나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의 형제들과 우정을 증진하기에 합당하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세상에서 흠 없이 설 수 있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일 것겠습니까? 만일 내가 이와 같은 이해력과 정신과 행동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한다면 나는 항상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근심하지도 않으며 고통스러운 공포도 느끼지 않습니다.”(임프르먼트 이라, 1917년 7월호, 827페이지)

여러분은 그가 의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영원한 진리의 뜻대에 매달려 있었으므로 안전함을 느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나는 연구와 신앙과 기도로써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항상 염두에 두며, 그러한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커져서 우리가 항상 그 간증에 기초를 두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면 세상에 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화평을 느끼며 생활할 것입니다. \*

# 우리의 부름 기쁨인가, 고역인가?

래리 힐러

**주**님은 우리가 그의 왕국에서 봉사하기를 바라고 계실 뿐 아니라 열의를 갖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감독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부름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설이며 부름을 받아들인 후에 부름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머뭇거리고 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며 부름을 수행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망설이거나 걱정하며 부름을 받아들이나 성공하며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 우리 감독단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길게 부름에 대해 생각하였으며 영이 우리가 선택할 것을 확인하였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길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부름이든 자신의 교회 부름을 수행하며 기쁨을 맛보고 성공하는 것같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또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부름을 수행하면서 더 많은 기쁨을 맛보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이 있습니까?

최근에 나와 함께 일하는 브렌더 자매와 나눈 대화에서 하나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 1, 2개월 전에 그녀는 와드 청녀 서기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부름으로 별다른

감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근에 그녀의 새로운 부름을 더 좋아하게 되었는지 물어 보았을 때 지금 그녀가 자신의 새로운 부름을 매우 좋아하고 있음을 알고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브렌더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감독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그날 우리집에 와서 나에게 청녀 서기로 봉사할 것을 부탁하였을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독에게 ‘예’라고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몇 번 청녀들과 함께 일해 본 적이 있었으며 그 부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랬더니 감독은 내가 침묵을 지키니까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여겼으며 나는 다음 일요일 성찬식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새로운 부름을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순교자가 된 것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브렌더 자매에게 어떻게 그와 같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 보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더불어 그녀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특정한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의 부름을 수행하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1. 부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봉사할 사람들에게 대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브렌더 자매는 과거에 청년들과 함께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가능한 한 새로운 부름을 수행하며 훌륭한 것을 많이 얻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변화를 얻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더우기 나는 남편에게 특별한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브렌더 자매는 자신의 부름에 대한 혐오감을 생의 사실로 받아들인느니보다는 부름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감독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실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며 교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많은 직책에 부름받을 것이라는 축복사의 축복문의 일부 내용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로서는 적격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장로 정원회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으며 나중에는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지식과 경험을 쌓았으며, 계속해서 두 번이나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였으며, 그 후 고등 평의회원으로 봉사하였는가 하면 지금은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나에게 대해 더 잘 알고 계심을 아는 데 이토록 오랜 시일이 걸린 것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나는 아직도 지도자의 직책을 원하

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직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경우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면 필요한 도움을 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개발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의 하나입니다. 교회가 역점을 두는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부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봉사할 사람들에게 대해 느끼는 태도는 부름에 있어서의 행복과 성공에 지극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까지 나는 나의 자녀들이 아기일 때 찍어 둔 그들의 사진 몇 장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사진을 찍은 이래 그들은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또한 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변화되었는데도 그들의 지난 날의 모습 그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그들과 긴밀하게 일할 기회를 갖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나는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 한 소녀를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그 평판이 어느 정도로 뜬 소문이며 어느 정도 진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제로 규칙을 많이 어긴 반항적인 그룹과 교제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회원이었지만 가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몇 년간 그녀를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녀의 모습이 어떤가 물었다면 나는 다만 내가 학교 시절에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녀에 대해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이상 지난 어느날 밤 신전에 있을 때 곧 남편에게 인봉된 신부의 명단에서 이 소녀의 성명이 불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생애에서 분명히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니 나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여러분이 봉사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 이것은 사람들에게 대해 마음의 문을 열어 두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두 번째 큰 계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은 의무를 즐거운 봉사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가 여러분의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스럽지 않은 것같이 보이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은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언젠가 훗날에 갖게 될 간증회를 그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일어서서 눈물을 흘리며 구세주의 사랑과 회개와 용서의 원리에 대한 강한 간증을 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전세계의 어느 곳의 교회에서나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도움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십시오.

3. 자신의 의무를 배운 후 그 의무를 완수할,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교성 107:99)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일을 행하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행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해야 할 때, “이 일을 즐겁게 하도록 도와 주소서. 그러면 제가 일하겠나이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은 일을 통해서 기쁨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4. 긴 안목을 가진. 여러분의 부름이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과 왕국의 백성들을 강화하는 일에 공헌하고 있는 모든 면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부름의 중요성과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브렌더 자매는 이러한 긴 안목이 자신의 부름을 통해 기쁨을 맛본 것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보고서에 숫자를 기입하고 출석을 표시하기 위해 출석표에 x표를 하는 것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반고문과 청녀 회장단이 각 소녀의 활동에 대해 알도록 내가 돕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나는 감독이 각 소녀와 갖는 중요한 연례 접견 계획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다루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부름을 잘 수행함으로써 진실로 사람들을 돕고 있

음을 발견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이란 우리가 그 부름의 목적에 대한 긴 안목을 갖지 않는다면 하찮은 임무로 여겨질 수 있는 부름의 좋은 예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행복에 가득 찬 성공적인 모든 가정 복음 교사는 자기들이 가족을 강화하는 가장을 돕는 자일 뿐 아니라 가족과 신권 지도자간의 중요한 의사 소통 연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명받은 가족을 통계 자료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5. 자신을 모두 줌, 주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부름을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재능과 능력과 필요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행할 때에만 나타나게 되는 숨겨진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교성 4:2 참조), 단순히 선교 사업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많이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성공과 발전과 성취를 이룹니다.

6. 성공하도록 노력함. 우리가 오랜 시일이 걸리는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을 때, 이따금씩 거두는 성공은 먼지 많은 길을 걷는 먼 도보 여행에서 마시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가정 복음 교사는 많은 어려운 때를 극복하게 해준 성공의 느낌을 자기에게 안겨다 준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매우 활동적이지만 복음의 모든 원리대로 생활하려고 전념하는 것같이 없게 보이는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과 함께 토론해야 할 것 중에 어떤 것이 각 경우에 가장 가치있는 것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여 금식의 원리에 대해 말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전에 자기들끼리 이 원리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들에게 이 원리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도 금식해본 적이 없는 그들의 자녀 한 명은 다음 금식 주일에 금식할 것을 결심하였으며, 그후 그녀가 금식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경험이었다고 말할 때 그녀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바로 그 성공적인 경험으로 나는 가정 복음 교사로서 또 다른 성공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후로 성공할 때마다 나는 참으로 가치있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새로운 느낌을 갖곤 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초기의 성공은 내가 가정 복음 교사로서 동기를 부여받고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나는 그 부름의 결과를 통해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7. 부름을 자신의 생활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배움. 여러분이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그 밖의 중요한 일이나 더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던 일을 가끔 멈추고 우리가 과연 현명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 경우에 가장 필요한 일을 실제로 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영화관에 데리고 가면 우리는 함께 2시간을 보내지만 서로 이야기는 나누지 않고 영화만 관람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함께 산책하거나 정원에서 일하면 함께 이야기도 하고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가지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함께 영화관으로 가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나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내가 특별히 바쁜 일정을 갖고 있는 경우 잘 선택한다면 적은 시간을 들여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한 가지 활동을 하면서 2가지 이상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정원에서 잡초를 뽑으며 자녀들과 함께 보냅니다.

우리가 그대로 허용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우리의 시간, 즉 매일매일의 모든 시간이 전부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할 일의 우선 순위를 알고 언제 어떻게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는 일을 거절해야 할 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진실로 중요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일이란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 우리 가족의 영적인 복지, 주님의 왕국에서의 봉사 그리고 우리의 직업에 관한 것입니다.

8. 성신이 자신의 동반자가 되도록 생활함. 여러분이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면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적용할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원리

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알아야 할 일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서 맡고 있는 임무에 대한 긴 안목을 갖기 위해 일상적인 의무 이상의 것을 보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낙담할 때 위로해 주고, 여러분이 당황할 때 영감을 주며,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우리의 일이 항상 우리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낙담과 부적당한 느낌과 지루함을 안겨 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러한 느낌을 극복함으로써 발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단순히 의로운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부름이 무엇이든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부름을 통해 현재 얻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이 2:25) 인간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부름을 통해 얻게 될 기쁨이란 훌륭하게 행한 일에서 오는 만족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애에 선한 영향을 미쳤을 때 느끼는 온화함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이 “잘 하였도다”라고 속삭일 때 느끼는 안도감입니다. \*



#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냄

린드지 알 커티스

사업에 성공을 거둔 나의 한 친구가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그의 판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비결을 그가 여러 고객들 사이에 끼어 분주히 오가는 중에 전화가 걸려 온 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무원이 이렇게 말했다. “랄프씨 부인께서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세요.” 저쪽에서 음성이 들려 왔다. “별일 없으세요.”

“음, 그런데 몹시 바빠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전화했소?”

잠시 말이 끊겼다. 그러다가, 약간 기분이 상한듯이 베리가 이렇게 말했다. “잠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전화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바쁜 데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해요.”

랄프는 베틀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집에는 재재거리며, 뛰놀고, 말썽을 부려 항상 아내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곱살도 안된 아이들 네 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 역시 바쁘고, 속상할 때가 많았다.

랄프는 곧 사과하고, 베틀에게 자기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며, 언젠든지 좋으니 전화를 하라고 말해 주고, 그날 저녁에는 함께 나가 외식을 하자고 했다.

그럼 랄프가 발견한 사실은 무엇인가? “베틀은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므로, 누구보다도 내 시간을 먼저 차지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그런 태도로 대해 주니, 그녀는 “행복해했어요. 그러니 나도 마음이 즐거워져, 우리는 둘다 자기 일을 더 잘해낼 수 있었답니다.”

나는 바쁜 사람들은 필히 랄프의 교훈을 배워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불행이나 능률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산부인과 의사인 나는 여성들을 대하게 되어, 여러 부인들로부터 남편의 시간 활용에

대한 그들의 느낌에 대해 들곤한다.

랄프와 마찬가지로 바르도 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자기의 진심을 이렇게 털어 놓았다. “바트는 항상 나가 있으며 나도 그 점을 이해해요. 그러나 남편은 저녁에도 나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밥 먹고 나서 교회 모임으로 달려 가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어 버리기 일췌거든요. 남편은 낮이나 밤이나 나가 있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남편이 은퇴하면 사정은 달라지겠지만 10년 후의 일인걸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편이 정열적인 기업가인 뭇은 큰 상점에 덧붙여 또 다른 연쇄점을 개업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남편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게 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남편은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는 편입니까?”

“남편은 여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뭇은 솔직히 인정했다. “그러나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식구들이 모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은 나에게 틈나는대로 전화를 걸어 주며, 할 수 있다면 나나 한 아이를 불러내어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에 부푼 기대감이 떠올랐다. “남편은 내일 돌아올 거예요!”

그 남편도 그 교환을 몸에 익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나는 남편이 사업 관계나 교회 일로 밖에 나가 있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내 친구 중에 아주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감독은 최근에 이렇게 말했다. “아내와 나는 내가 해임되면 얼마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내인 도의를 잘 알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거나 불평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참는 성질이었으나, 그녀는 의로와하는 것이 역력했다. “지금은 어떨까?”하고 나는 물었다. “자네가 이 부름을 마치면, 주님은 또 다른 부름을 자네에게 주실 것이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지 않은가” 하고 그는 항의하듯 말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낼 줄 아는 어느 스테이크 부장을 알고 있다. 그는 어떤 문제나 모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조그만 자명종 시계에 시간을 맞춰 놓는다. 그의 보좌들과 고등 평의원들도 계획표에 대로 행하고 일목요연하게 보고할 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랐다. 따라서 그 스테이크 내의 자매들은 그 점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나는 여기서 사업이나 교회 또는 사회 생활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1. 될 수 있는 한 많이 위임시킨다. 재정 서기가 감독의 비서의 일, 타이피스트, 관리인, 역사 기록 서기일을 다 맡아 하려면, 전적으로 그 일에 매달려도 모자랄 것이다. 자기 맡은 일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게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바가 장 훌륭한 감독들은 각 보좌들을 잘 훈련시켜 누구든지 자기 대신 할 수 있게 한다.

한 유능한 스테이크 부장은 고등 평의원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우리 모

임에 문제점 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십시오.” 문제점보다는 해결책을 토론하면 누구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을 계획한다. 이것은 특별한 과제를 이루기 위해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것이다. 편지나 전화로도 모임을 개최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일일이 집으로 찾아 다니며 접견을 하는 대신에 사무실로 사람들을 오게 하여 방문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빨리 알면서, 비상 사태까지 몰고 오도록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는 문제 발생에 대한 예방 접견을 감독이나 정원회 회장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와 가정 복음 교사, 아버지와 남편에게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합당하게 행해지는 접견시에 솔직하고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목적이 통합되고 상호 이해의 토대가 이루어져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

3. 가족을 위한 특별한 저녁을 마련한다. 가정의 밤 시간만이 아니라, 여려분과 여러분의 아내가 아무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상호 관계를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저녁 시간을 갖는다.

나는 내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으며, 가정 생활에 시간을 할애하면 부모나 교회 역원이나 직업인으로서 생활하는 데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시간을 계획한다. 바쁜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므로, 그들은 스스로 시간을 찾고 만들어 낸다. 우리가 미리 2주일 전에 계획한다면, 아내와 나는 저

녁 식사를 함께 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의 순서를 계획하는 것 역시 짧은 시간에 훌륭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의사인 나는 많은 환자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2분간이나 잠시 틈을 내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기도 한다. 아내는 그 점에 대해 감사해 했으며, 나는 항상 새로운 열의를 갖고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시간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은 매일 동료 직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대신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애정과 감사를 느끼는 데서 얻는 개인적인 힘은 어떤 친구나 어떤 중대한 일도 내게 그만큼 힘을 줄 수 없는 특별한 상여금과 같은 것이다.

5. 서로 칭찬해 준다. 누구든지 적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장점을 키우면 다른 특성도 돋보이게 된다. 나는 아내를 실망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혼자 참는 편인데, 그것은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소!” 하고 말해 주는 것이며, 그 말을 하는 데는 5초도 안 걸린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아내보다는 직장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아내들은 남편의 시간에서 가장 우선 순위를 차지하기를 원한다. 바쁜 사람들일수록 힘이 들더라도 아내와 가정을 위해 이처럼 필요한 시간을 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결코 시간을 헛되게 쓰는 일이 없을 것이다. \*

# 지금 이대로

패트리시아 에이 애쥬어

“나는 지금 이대로 행복해요” 8년 전에 내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아직도 내 귓가에 쟁쟁합니다.

사실, 난 그때 행복한 편이 못되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심한 절망에 빠져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그보다 2년 전에 내가 물론 교회로 알고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편지를 쓰신 일이 있어, 나는 “어머니를 참 쓸데없는 일도 하시지.”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여러 권의 책과 소책자를 갖고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려 했지만, “나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해요.”하며 말씀을 막았습니다.

나의 남편은 순수한 인디언이고, 나는 인디언 혼혈입니다. 나는 늘 인디언에 대하여 연구하며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모친은 물론경을 읽어 보면 인디언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

했습니다. 또한 니파이삼서에는 나를 무척 기쁘게 해줄 기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은 어머니에게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어 보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경 한 권과 다른 책과 소책자를 남겨 두셨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후,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책을 내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나는 방에서 나와 내가 읽은 것을 가족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2주일 뒤에는 물론경 한 권을 모두 읽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22년간 담배를 피웠으나, 물론교의 진실성을 알고 나서는, 담배에 대한 욕망을 없애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남겨 두고 가신 소책자를 읽고,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와 기이한 업적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1969년 가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나의 자녀들과 여동생 벨로레스와 나는 그 다음 해 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2년 후에는 언니인 카를린이 우리 집의 가정의 밤 시간에 참석했다가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모친의 세 딸들이 모두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가장 필요했을 때 나에게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야말로 진심으로 “지금 이대로 행복합니다”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산부인과 의사인 부인과 의학 교수인 린드지 알 커티스 박사는 현재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선교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 인간의 최대의 의무

데이비드 오 맥케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9대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제9대 대관장은 유타주 헨츠빌에서 1873년 9월 8일에 출생했다. 1906년 4월에 32세의 나이로 그는 십이사도 평의회 의원으로 지지를 받았다. 그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과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의 재임시에 대관장단 제 2 보좌로 봉사했다. 그가 사도로 성임된지 45년 후인, 1951년 4월 6일에 대관장으로 지지를 받았다. 맥케이 대관장은 1970년 1월 18일 96세로 작고하여, 이 율법의 시대의 어느 총관리 역원보다 더 장수하였다.

“인간의 최대의 의무”라는 이 말씀은 맥케이 대관장이 1953년 4월 4일에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서 가진 연차 대회에서 행하신 말씀에서 발췌한 것이다.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 16 : 26)

구세주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처음으로 질문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26절에서, 그는 다시금 일상 생활에서 인간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부와 세속적인 명예와 쾌락과 명예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

이나 다 추구하면서, 영혼의 영원한 부는 전혀 돌아 보지 않고 내 버려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을 물질적 소유와 영적인 소유를 단순하지만 위엄있게 비교 하셨습니다.

또 한번은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 : 33)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의 의를 키우고자 노력하는 것은 인생의 원대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을 이끌어가는 정치가들과 명철한 사고를 하는 교육가들은 대중 앞에서 연설이나 잡지 기사를 통하여 현대에는 영적인 빈곤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도덕적 윤리적 표준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말일성도는 두 가지의 큰 의무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 가정의 질서를 바로 잡음. (2)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간 가족의 구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의 필요성을 만방에 외치는 것입니다.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정에서 느끼는 기쁨은 이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며 부모가 자녀를 보고 즐거워 함은 인간이 느끼

는 가장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그들의 마음을 순수하고 선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올려 줍니다.

결혼과 가정 생활의 높은 이상을 합당하게 키워 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러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상과 비방은 영혼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가정에서는, 학교 교사나 공무원 또는 교회 역원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자, 너의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지 말아라” 하시며 손을 들어 말리시곤 하시던 나의 부친께 지금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행복을 막는 다른 요인은 부모가 어머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전히 이행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회원이라면, 가정에서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죄악을 범해서는 안되며, 특히 향락을 누리기 위해 시간을 위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또는 이웃 사람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녀가 한두 명일 때 더욱 잘 교육시킬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은 지금도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누구도 그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결혼 생활의 높은 이상에 따라, 교회의 회원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져야 하며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결혼 생활은 자녀들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 합당하게 양육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가정을 건립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교회에 속해 있는 대다

수의 부모의 마음을 감동깊게 울려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인간의 생활은 어느 때나 다 훌륭한 것입니다.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 어린 시절, 사춘기와 구혼기의 감격적인 시절, 부모가 되어 보람도 느끼지만 부담을 지게 되는 시절이 모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인생의 때는 부모가 어른이 되어 성공한 자녀들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 손자들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때입니다.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가며 예정표대로 생활하고,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 시기이며, 사춘기는 신비와 소망과 좌절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싸우고 그것을 해결하기에 바쁘며, 노년기가 되면 영원한 신비의 그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장년기와 중년기에 인생을 합당하고 충실하게 생활해 온 사람이라면, 단순한 성취감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손자와 함께 생활하는 데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정상적인 인간은 소년기와 사춘기, 청소년기, 부모가 되는 시기, 중년기와 손자의 성장 등 자연적인 순서에서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각 시기마다 경험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만족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몇번이고 거듭나야 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도 태어나고, 아버지도 태어나며, 할머니도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인생의 주기에 의해서만 인류의 큰 기쁨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알 제이 스프래그)

우리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화목한 가정 생활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로 주요한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1900여년 전에 한 용감한 신앙의 수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사도행전 4 : 11-12)

이처럼 예수를 유일한 구원의 지도자요 이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외친 사람은 약 2000년 전에 평범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이나 나처럼 보통 사람들 속에 섞여 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행동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기반도 잡았으며, 지도력도 갖추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정직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와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그는 항상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세주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활 철학은 곧 베드로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일순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고 세심한 관찰과 내적인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확고하고 숭고한 확신을 얻게 되어 자기를 고소한 유대 재판관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와 또한 부활을 사실적인 현상으로만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의 극치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견재해 있음에 만방에 전합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종교 지도자들은 미덕과 절제와 자제심과 봉사 및 의로움과 의무에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라의 통치자를 또는 후세를 믿으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의 장막을 찢고, 죽음은 불멸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계시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고대의 사도들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제시했으나 우리는 그 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훌륭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함이니라.”(교성 76 : 22)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셨듯이, 인간 가족도 그러하며, 모든 인간은 지상 생활에서 한 행위에 따라 내세에서 그에 맞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은 생명만큼 영원한 것이므로, 부활의 메시지는 가장 큰 위안을 주고, 인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신성을 받아들이고 행복한 사람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지상의 천국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위안과 행복의 근원이 됨을 간증드립니다.

온 세상의 정직하고 진실한 모든 남녀가 영적으로 이러한 확신을 받게 될 날이 곧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 서부로

## 1847~1877

글렌 엠 레오나드



브리감 영 대관장이 재임해 있던 30년 동안에는 나부 탈출로부터 비교적 평화스러운 시기를 거쳐 교회 성장의 중요한 시기를 맞게 되었다. 그전의 위협적인 폭도들에게서 벗어난 성도들은 북미와 서부에 350여 곳의 마을을 세웠고 성도들도 3배 이상 늘어났다. (약 150,000명) 브리감 영은 성도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고 개척 사업을 지휘하여, 유타지역(주로 승격하기 전의 준주)의 최초의 지사가 되었다. 성도들은 요셉 스미스가 소개한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후 예언자들은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보조 조직을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선교 사업은 지구상의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1846년 나부를 떠날 당시에는 겨우 14,000명의 회원이 서부 일리노이스와 동부 아이오와에 살고 있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의 급선무는 나부의 전 도서를 다시 찾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서부의 성도들을 새로운 집합지로 모으는 것이었다. 이 놀라운 본격적인 이동은 6년 동안 계속 되었고 그 후에도 50년 이상 불규칙적으로 계속되었다.

아직 개척되지 않은 평원과 산을 넘어 1600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큰 희생을 요구하는 험거운 일이었다. 모두가 다 마차와 소와 3개월 동안의 여행에 필요한 물자를 살만한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1849년에, 브리감 영은 유타에 있는 회원들에게 이들을 돕기 위한 자금과 물자를 기부하도록 권고했다. 이것이 영구 이민 기금의 시작이 되었으며 1887년까지 계속되었다. 유럽과 미국 성도들은 이주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그 기금에서 빌어썼다. 그들은 빌려쓴 돈을 갚을 능력이 생기면 즉시 그 자금의 회전을 위해 상환했다.

1856년 1860년 사이에 3천명 이상(이



주자의 3분의 1)이 살림살이를 손수레에 싣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면서 평원을 건너 아이오와의 철로가 끝나는 곳에서 유타까지 도보로 걸어왔다. 각 부대에 배정된 몇 개의 마차에는 무거운 짐을 가득 실었다.

이러한 수송 작전의 첫해에 제임즈 지월리와 에드워드 마틴이 인도하는 제4제5손수레 부대는 손수레 구입이 늦어서 한해가 다 저물어 갈 때 출발했다. 이 개척단은 와이오밍 평원에서 그 해에 처음으로 내린 폭설에 갇혀버렸다. 브리감 영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음식과 의류와 말과 마차를 모아 보냈다. 이 두 부대는 결국 구조되었으나 전체 일행의 5분의 1인 200명이상은 얼어 죽었다. 최후의 부대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11월 말경이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한 새로운 이주민은 브리감 영과 다른 총관리 역원의 환영을 받았으며 도시 와드 회원으로부터 진수성찬을 대접받았다. 지역의 주민들은 그들이 영구한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이주민을 돌보았다.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정착지로 가거나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도록 지명받았으며 소규모의 땅을 얻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일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

1847년 가을까지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2,000명의 개척자들은 비교적 따뜻한 첫 겨울을 지냈다. 그러나 밀과 야채가 모자라 구하기 어려웠다. 봄이 되자, 이주민들은 시고우릴리와 여러 가지 뿌리와 나물을 캐먹고 허기를 채웠다. 3월에는 1848년도에 수확할 씨를

뿌렸다. 그러나 한발과 늦봄에 내리는 서리로 말미암아 많은 작물이 피해를 보았다. 5월 하순에는 검은 메뚜기떼가 몰려와 밀과 작물을 먹어치웠다. 몰려오는 곤충을 죽이기 위해 물을 대고 때리고 불을 지르고 했으나 허사였다. 그해 수확은 그 때문에 많이 감소되었으나 그 당시 솔트레이크호의 섬에서 몰려온 갈매기 떼가 아니었다면 개척자들은 그것마저도 건지지 못했을 것이다. 갈매기 떼가 메뚜기를 잡아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었다. 성도들은 때를 맞추어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

두번째 겨울(1848—49)은 혹독한 추위가 들이닥쳐 성도들과 가축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펠감을 구하기가 힘들었으며 양식도 차츰 줄어들었다. 어떤 가족은 생가죽을 끓여 먹기도 했다. 여분의 식품을 가진 사람들은 이주지에서 고생하는 불행한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1849년에 미국의 서부에서 금광 소동이 일어나 서부로 행하는 많은 여행자들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잠시 쉬며 사막 횡단을 마지막 손질을 했다. 성도들은 연장을 고쳐주거나 가축을 팔고 사며 이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유익을 얻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많은 짐을 진 이들 황금광과 상인들은 여분의 의류와 기구와 연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거래로 말미암아 유타의 개척자들의 경제는 크게 부흥되었으며 교회는 회원들에게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할 수 있었다.

많은 개종자들이 나부 시대로부터 북

부 유럽에서 이주해 왔으며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개종자가 생겨났다. 1850년대에는 장로들이 라틴 아메리카와 태평양 군도와 아시아, 인도, 남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다.

1849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브리감 영 대관장은 남 캘리포니아, 타히티, 이태리,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에 파견할 선교사를 불렀다. 로렌조 스노우와 존 테일러 장로는 중앙 유럽과 남 유럽에서 이라스투스 장로는 스칸디나비아에서 각각 선교 사업을 행했다. 다음해 팔리 피 프랫 장로는 남 아메리카에 파견되었고 조지 큐 캐넌은 소그룹을 이끌고 하와이로 갔다. 1851년 선교사들은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타스마니아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고 1852년 8월에 열린 특별 대회에서는 지브롤터, 말타, 프러시아, 남아프리카, 자마이카, 중국, 타일랜드, 시론, 인도 등지에 선교사를 파견했다. 사실상 선교사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 북부 유럽 이외에서는 개종자를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 1850년대의 대부분의 새로운 선교 지역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들은 유럽 이주자들과 오스트랄리아의 폴리네시아 원주민과 뉴질랜드 하와이 등지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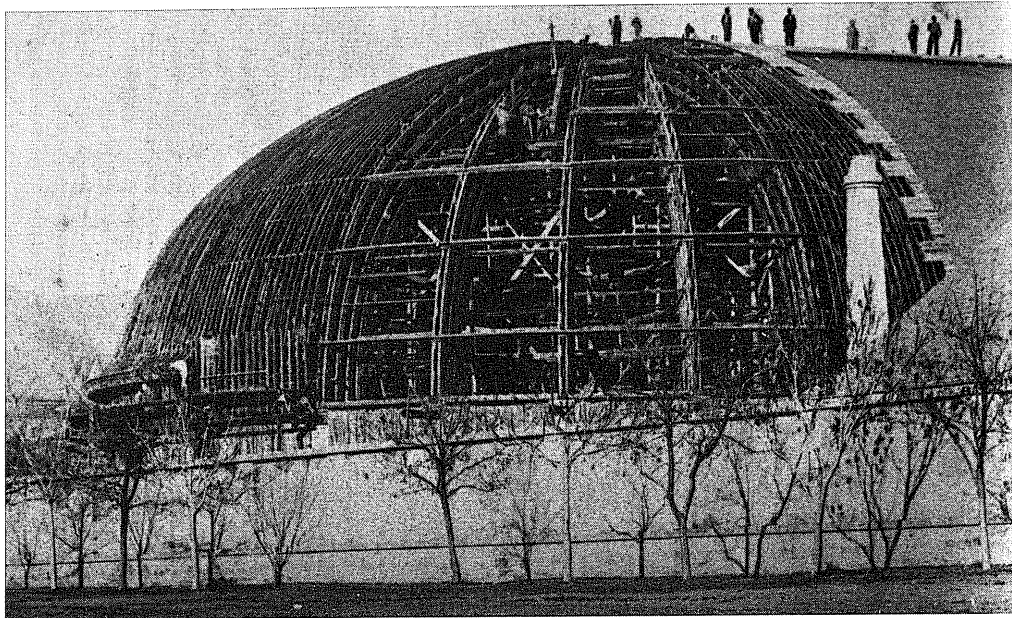
1850년대 중반에 유타로 돌아간 대부분의 장로들은 말일성도의 정치적인 권리를 옹호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1856년 미합중국 정부가 임명한 한 지역 관리가 그 당시 미합중국 대통령인 제임스 브캐넌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 대통령

은 그 허위 보고를 믿고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유타에 미합중국 군대를 파견했다. 그는 또한 브리감 영을 지사직에서 해직시키고 그대신 엘프레드 커밍을 임명했다.

브리감 영 지사가 대통령의 조치를 알게 되자, 그는 수년전에 있었던 마음대로 날뛰는 정부군이 무죄한 주민들을 살상하고 재산을 불지른 것과 같이 이들 군대도 유타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북부 유타에서 철수하라고 명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은 그들의 재산을 꾸려 마차에 싣고 솔트레이크시티를 지나 남쪽으로 피난했다. 그는 또한 그 지역 군대에게 한 명의 정부군도 부상을 입히지 않고 정부군의 접근을 지연시키도록 명했다.

그해 겨울에 정부군은 마침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다. 브리감 영은 교회의 중재인인 토마스 엘 케인과 함께 그의 후임 지사를 만나보고, 그들은 그것이 와싱톤에서 조작된 오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성도들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커밍지사는 의로운 행정관으로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다.

1860년대와 1870년대에도 계속적으로 번성되어 나갔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의 회원인 물론 주거지에서는 그들의 생활은 워드 활동—워드 사교 모임, 무용, 연극, 합창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워드의 규모는 다양했다. 1860년대까지만 해도 어린이들을 위한 유년주일학교를 제외하고는 보조 조직이 없었다.) 감동은 공동생활에서 중심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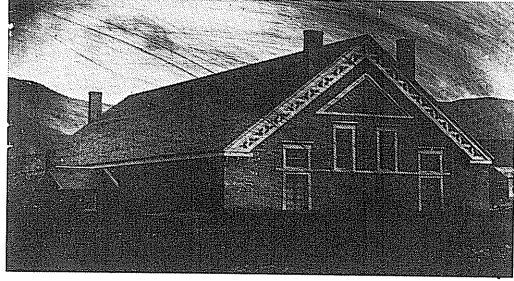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키투어에 위치한 태버넬, 1863년에 착공되었다. 1867년 태버넬이 완공되기 전 찰스 알 새비지가 촬영한 사진

역할을 했다. 감독은 와드 교사를 관리했고 와드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감독이 세사적인 임무 즉 부족한 관개용 물의 사용이나, 공동으로 가축을 돌보거나, 집회소의 청소와 관리, 미망인을 돌보는 일을 행했다. 매주 성찬식에서 연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 설교를 하면서 울타리를 고치는 일과, 벨 나무를 운반하는 등 실제적인 생활에 관해 충고해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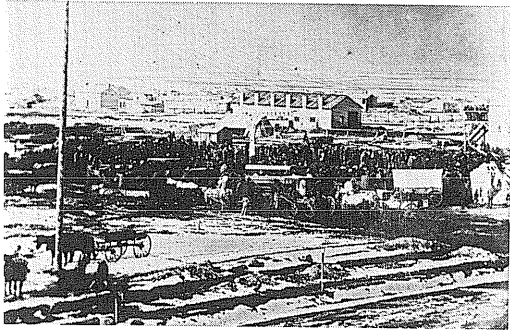
고립되어 있던 말일성도 사회는 1860년대에 솔트레이크시 근교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인들이 몰몬 가운데 금과 은을 소지하고 있는 자들이 많음을 발견하게 되어 끝났다. 금을 구하는 많은 무리들이 유타로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사회적인 영향력을 많은 몰몬 인구에게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외

부 사람들의 유입은 1869년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되자 더욱 증가되었다. 철도는 주요한 대륙 횡단 교통 수단으로써 마차 부대를 대신하게 되었다. 화물 운반과 여행자들은 비교적 용이하게 유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이로써 개척의 시대는 끝나게 되었다.

동부의 상품이 밀려들어 오게 되자 유타의 자급자족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경제 계획을 수립하기로 동의했다. 1860년대 말기에 브리감 영은 협동 조합 운동을 펴기 시작했다. 각 와드는 지역의 특수 사업 즉 가축, 빛자루 공장, 무두질 공장, 치즈 공장 등을 합쳐 협동조합 상점을 조직하도록 권장되었다. 회원들은 이 와드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고 지역 경제가



상 : 템플 스퀘어에 있던 원래의 태버내클, 1852년에 완공되었다. 마세나 캐년이 촬영한 사진;



하 : 브리감 영 대관장이 1847년 7월 28일 솔트레이크 신전 부지를 선택했다. 그후 1853년 2월 14일 브리감 영 대관장이 기공하였으며 히버 시 킴블 장로는 신전 부지를 헌납했다. 기공식과 신전 부지 헌납식에 관한 사진은 마세나 캐년이 촬영했다.

성장함에 따라 전체 마을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와 같은 기업들은 양과 가격에 있어서 수입품에 대항하여 경쟁을 하는 데 성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대 주주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1870년대 중기에 말일성도들은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회 활동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상호부조회는 1867년에 재조직되었다. 그 후 브리감 영 대관장의 지시 아래 상호부조회에서는 모든 와드에서 청년 상호향상회를 조직했으며, 청년 상호향상회는 1875년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까지 지역 단위로 조직되었던 주일학교는 1867년 조지 큐 캐년 장로의 지시 아래 교회 전체 프로그램이 되었다.

교회의 결속은 건축 프로그램에서 가장 잘 나타나게 되었다. 1863년에 시작된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은 1867년 10월에 완공되어 아취형의 지붕을 한 건물에서 연차 대회를 개최했다. 1871년 브리감 영은 유타주 세인트 조지의 성도들에게 남부 유타주와 네바다 주의 성도를 위해 신전을 지으라고 지시했다. 연로한 예언자가 1877년 4월에 그 신전의 헌납식을 감리했다. 또한 예언자는 그해 봄 그가 운명하기 수개월 전에 로간 신전과 맨타이 신전 부지를 헌납했다. 세인트 조지 신전은 20여 년전 나부로부터 탈출한 이후 최초로 완성된 신전이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템플 스퀘어 엔다우먼트 하우스는 개척기에 임시로 신전으로 사용되었다.)

말일성도가 이와 같이 초기에 신전을 완

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일치된 헌신과 희생의 결과였다. 브리감 영의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4일 후에 그는 신전을 짓기 위해 선정된 땅에 첫 삽을 떴다. 그는 그 건물을 처음 건축하면서 여러모로 직접 감독했으나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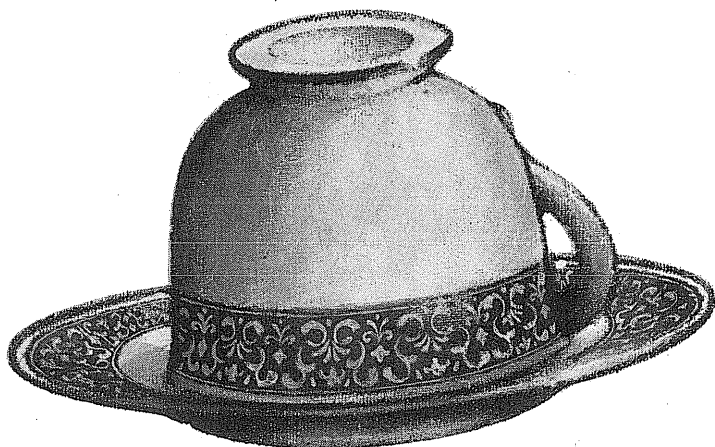
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 건물은 그가 돌아가신지 40년 후에 완공되었다. 그의 동료 사도인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1893년 4월에 솔트레이크 신전의 헌납식을 감리했다. \*

## 교회 연대와 세계사 1847—77

- |           |                                            |           |                              |
|-----------|--------------------------------------------|-----------|------------------------------|
| 1847      |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함<br>브리감 영 제2대 교회 대관장이 됨 | 1846—1932 | 대 이민단이 유럽으로부터 미합중국과 아시아로 이주함 |
| 1850—1854 | 교회에서 유럽과 태평양 군도, 인도, 남 아메리카에 선교사를 파견함      | 1848      | 전 유럽 지역에서 혁명이 일어남            |
| 1852      | 복수 결혼에 대한 교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됨                    | 1849      |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쉬 (금 소동)           |
| 1857      | 미합중국 군대 유타주 진주                             | 1850—1855 | 태평 천국의 난(중국)                 |
|           |                                            | 1853—1856 | 1856 크림리아 전쟁                 |
|           |                                            | 1859      | 찰스 다윈 “종의 기원” 출간             |
| 1867      | 태버내클 완공                                    | 1861      | 러시아 농노해방 선언                  |
| 1869      | 청녀 절제회(후에 청녀 상향회) 조직됨                      | 1861—1865 | 미국 남북 전쟁                     |
| 1874      | 협동 교단 설립                                   | 1864      | 살균법 개발                       |
| 1875      | 청녀 상호향상회 조직<br>브리감 영 아카데미(후에 브리감 영 대학교) 창설 | 1866      | 이탈리아와 프로이센이 동맹하여 오스트리아와 싸움   |
| 1877      | 브리감영 사망                                    | 1868—1912 | 일본 메이지유신 일어남<br>서구화, 현대화     |
|           |                                            | 1869      | 스웨즈 운하 개통<br>미국 대륙횡단 철도 개통   |
|           |                                            | 1870      | 이탈리아 통일 완성                   |
|           |                                            | 1870—1871 | 프로이센 · 프랑스 전쟁<br>독일이 연합됨     |
|           |                                            | 1876      | 전화 발명                        |

# 표준의 존중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내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내각의 농업 장관으로 봉사할 당시 나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 식량 농업 기구의 연차 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60내지 70개국의 대표들이 이 큰 국제 회의에 모였습니다.

아침 모임을 마치자 만국기로 장식된 국제 연회 홀에서 나를 위해 인상적인 오찬회가 베풀어졌습니다. 그곳은 각국의 기기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관례적으로 오찬을 듣기 전에 커피를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의 손에는 잔이 들려 있었으나 그 속에는 명백히 술이 아닌 청량 음료수와 과일 주스가 들어 있음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호스트인 인도의 쉐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대개 커피를 들 때는 관례대로 술을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

했습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오늘 우리는 장관님과 장관님이 지키시는 표준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환담을 나눈 후, 연회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더욱 놀란 사실은 커피가 나오지 않고 그 대신 청량 음료수와 과일 주스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쉐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찬회에 참석한 사람은 틀림없이 커피를 마시게 되리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저는 호스트이고 장관님은 이 시간의 주빈입니다. 이 오찬회에 참석한 분들은 귀하와 귀하의 표준을 존중합니다.” 이 오찬회는 여러 국가에서 온 유명한 지도자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교회의 회원은 누구나 자신의 표준 때문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서는 안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표준을 지키는 일은 값진 것입니다. \*

오래 전에 내가 영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나는 별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노령의 현자와 친하게 되었다. 그는 힘들여 가며 나에게 점성학의 신비에 관해 가르쳤다. 나는 무엇이든 다 알아보고 싶은 욕망때문에 그릇된 셈의 물도 가리지 않고 마셔, 어린 아이의 단순한 신앙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믿었다...나는 10살도 되기 전에 천궁도로 점을 칠줄 알게 되었다...

“당시 학교 친구중에 아주 장난이 심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 자랑을 하며 운동장을 누비고 다녔다. 우리는 모두 다 그의 말이라면 벌벌 떨며 우리가 가진 것을 털어 바치기도 했다. ...더구나 그는 우리에게 산수 숙제를 대신 시키고 지도를 그려 달라거나 작문을 써 달라기도 했다...만일 누구든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반항하면 심하게 때려 째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사정이 더 딱하게 된 것은 그 폭군같은 친구는 부호의 아들인데다가, 선생님까지 그를 두둔했던 것이다...

나는 별에게 상의하여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사슬을 끊어 나 자신과 나의 학우들을 풀려날 수 있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이 부랑자의 누이동생으로부터 벤의 생일과 탄생한 정확한 시간을 알아냈다. 그러한 자료를 입수한 나는 집으로 급히 달려가 즉시 그의 천궁도를 찾아냈다. 나는 다음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토성의 아들이었다. 그는 천체가 잘못 되었을 때 태어났으므로, 그가 신뢰할 수 없고 비천하며 잔인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나는 장애에 대한 점을 쳤다. 나는 수



## 나의 점성학 연구

제임스 이 탈매지

요일 오후 5시에 그의 별은 기울고 나의 별은 상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틀림없이 우리가 구조될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별들은 위험한 싸움에서 나를 도와줄 것을 약속했고 승리는 확실했다...힘은 뛰어난 지식의 힘에 의하여 정복당할 것은 틀림없었다.

“지정된 날 아침에 나는 운동장에서 그 부랑자를 만나 그에게 그날 저녁 5시에 만나자고 도전했다. 나는 과감하게 나의 결심을 그에게 나타내보였다...그는 크게 웃으며 나의 귀를 때렸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복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나는 성공을 진정으로 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5시에 우리는 지정된 장소에 모였다. 여러 명의 친구들도 참관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나의 상대자는 나보다 30센티미터나 더 컸고 무게는 6·3킬로그램이나 더 나갔다. 그러나 그런 것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나도 내가 이기

리라는 별의 확신을 받고 기뻐하지 않았던가? 나는 이 힘센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강압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폭로하며 지금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나의 적대자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 싸움도 격렬하기는 했으나 곧 끝났다. 나는 점차 의식을 회복하자, 자신이 땅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찢어지고 눈은 다쳤으며 코피가 터지고 이는 두개나 흔들거리고 머리칼의 상당한 부분이 빠져 버린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부랑아는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서 있었다.

“내가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나는 이상한 생각에 젖어 있었다. 나는 일생 처음으로 점성술에 대한 깊은 회의에 잠기게 되었다. 나의 가족은 내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부친은 나에게 싸움을 하지 말라는 훈계를 자주 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의 마음 속에 그 교훈을 깊이 새겨주기 위해 나에게 매질을 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의 의심은 사라졌다. 나는 점성학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가 1893년 쿼트리뷰터지에 기고한 “나의 점성학 연구”라는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

## 점성술에 관한 경전의 기록

레위기 19 : 31 :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신명기 18 : 9—14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장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사야 8 : 19—20 :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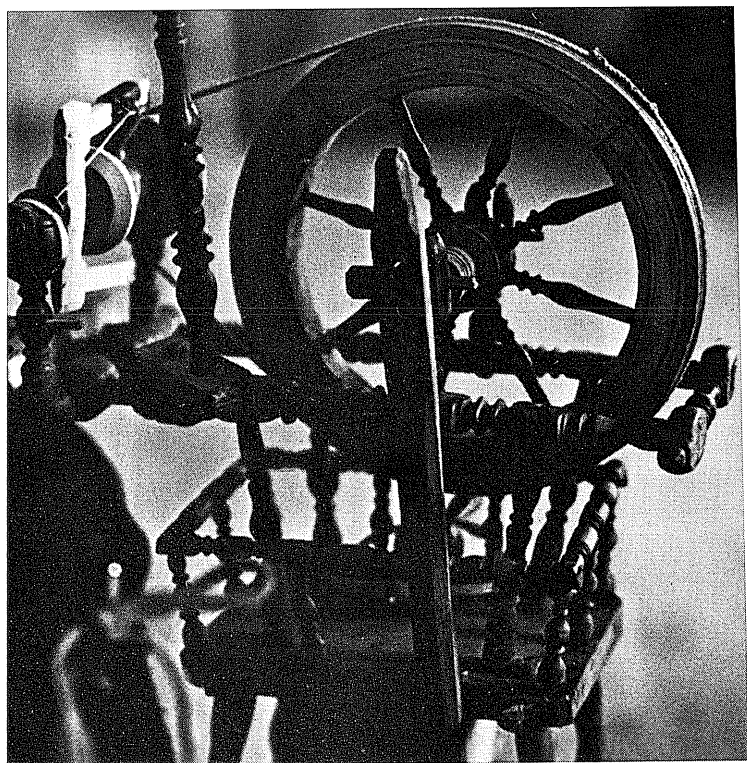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바침 빛을 보지 못하고”

다니엘 2 : 27—28 :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열왕기하 23 : 5 : 요시야 왕은 다음과 같이 했다.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열두 궁성에게…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





## 친한 가족

리차드 엠 림니

**커** 다란 양털 뭉치로 시작한다. 14살 된 루스 캔들러와 17살 된 언니 헬가와 11살 된 페트러는 아버지가 양털을 집에 갖고 올 때 종종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는 목동으로부터 양털을 사기 위하여 오스트리아의 높은 알프스산으로 여행했다. 목동들은 벌써 자기 양의 털을 깎아서 씻고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빗질을 하고는 섬유를 한 줄로 정렬하고 있다. 섬유를 끈게 함으로써 양털을 실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 캔들러 형제는 늘 가져 오는 짙짜는 양으로부터 깎은 흰색과 회색 양털과 함께 산양의 털인 진한 갈색의 털도 한 꾸러미 가져 온 것이다. 아가씨들이 흥분했는데, 이는 짧은 검정색 섬유는 실을 만

들기가 좀 어렵지만 집에서 만든 실로 학교 갈 때 입는 옷이나 일하러 갈 때 입는 옷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색깔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캔들러 가족의 가장 값비싼 재산은 100년 이상이나 된 낡은 물레이다. 그 외에도 다른 물레가 몇 개더 있어서 가족 전원이 동시에 실을 뽑고도 친구 한 명을 더 부를 수 있다.

실을 뽑는 것은 한 번만 잘 배우면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나는 삼일만에 배웠어요.”라고 페트러는 말한다. 캔들러 형제는 자기 부인이 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단 하루만에 그 기술을 배웠으며, 다른 가족만큼이나 실뽑기를 즐기는 것 같다.

루스는 이렇게 말한다. “앉아서 실을 뽑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만들면서 이

야기하거나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그 딸들은 가끔 부모와 함께 수공을 연습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미소를 띠고 농담을 하고 웃는다. 페트러가 뽑는 실이 올바르게 감기지 않는 것 같으면 언니가 그것을 고쳐 주고 캔들러 자매는 고개를 끄덕인다.

캔들러 가족이 사는 오이젠도르프의 작은 마을은 전기료가 비싸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와서 벽에 반사되어 방을 밝혀 주는 것에 의존해서 일한다. 가족들이 발판을 아래 위로 저으면서 손가락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실을 꼬으며 실패에 감는 동안 헬가가 서투르게 기타를 연주한다. 그녀가 짙는 코오드와 맑은 음성은 깡깡거리는 라디오나 잡담투성이의 텔레비전보다 훨씬 더 어울린다. 캔들러 형제는 “우리는 정말로 함께 행하는 경험을 나눈다. 우리는 텔레비전도 없다.”라고 말한다. 때때로 이웃에 사는 11살 된 미케일레이 같은 친구가 이런 즐거운 일에 참여하러 온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으므로(사진사가 그들을 찍으러 왔다.) 가족 모두가 그 지방 고유의 의상을 입고 있다. 대부분의 오스트리아인들처럼 그들은 연중에 가끔 정규적으로 와드에 참석할 때 입는 옷의 하나로서 전통적인 의상을 걸친다. 그러나 그들이 같은 날에 모두 다 그런 의상을 입는 일은 좀 드물다. 헬가는 민속 의상을 갖는 것이 실질적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편리해요. 이것은 절대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적이 없거든요.” 또 이렇게 덧붙인다. “십대 청소년, 어린이, 부모 등 모든 사람이 이 의상을 입어요. 그러나 우리

는 드레스나 청바지 등의 다른 것도 입어요.”

양모는 스웨터, 장갑, 병어리 장갑, 양말을 만드는 데 쓰인다. 헬가는 학교에 갈 때 집에서 만든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은 이 옷에 매혹당해요. 그들은 집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옷을 만들려고 해요.”라고 덧붙인다. 불과 몇 년 전에 실을 짜기 시작한 캔들러 자매는(친구로부터 그 방법을 배웠다.) 오스트리아 전역에 걸쳐서 손으로 짠 옷이 인기가 있으나 가게에서 너무 비싸게 판다고 말한다. (가게에서는 손으로 만든 스웨터 한 벌에 2,000실링, 즉 75,000원 가량 한다. 캔들러 형제는 산에서 양모 1킬로에 13,000원 정도를 주고 산다. 캔들러 가족은 순수한 자연 양모로 실을 만든다.





(이것은 염색하지 않았으므로 라놀린 양모지가 보존되는데, 이것은 섬유를 방수 처리해 주고 훌륭한 절연체로 만들어 준다.) 게다가 그들이 만든 의복은 언제나 가정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게 된다.

헬가는 캔들러 가족이 그들의 재능으로 인하여 그들이 참석하는 독일 무니히 스테이크, 잘쯔부르크(오스트리아) 와드와 기타 어디에서든지 친구를 만들고 교회 회원들과 우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았다고 말한다. 실 뽑는 일이 거의 끝나는 겨울 동안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있는 교회의 많은 가족들이 배우기 위하여 또한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모인다. (잘쯔부르크 근처에 있는 오이겐도르프는 독일 국경에서 약 3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한 남는 시간을 더 귀중하게 보내는 방법을 배우고 돌아가지요.” 라고 헬가가 말한다. 또한 캔들러 자매는 상호보조회 가사 공과 반에서 실 뽑는 것을 가르쳐 주며 그 딸이 어머니가

시범을 보이는 것을 돕는다.

캔들러 가족은 언제나 자급 자족하는 것을 좋아하며 일년치 비축품의 일부로서 물레와 양모를 저장하는 것을 생각한다. “우리는 비상시에도 옷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라고 루스가 말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식량 비축 프로그램의 일부예요.” 캔들러 가족은 스스로 밀을 찧고 빵을 구으며 가정 소채원을 가꾸라는 킴블 대관장님의 훈계를 기꺼이 따른다. 그들이 먹는 식품은 스스로 재배한다. “여름에는 소채원에서 일하고 겨울에는 실을 뽑지요.”라고 페트러가 말한다.

캔들러 가족은 오이겐도르프에서 맨 처음으로 몰몬이 되었다. 바로 1년 전에 교회에 들어온 그들의 친한 친구인 허먼 마틴즈는 그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한다. “캔들러 형제는 기와 장이와 연관공으로 일했지요. 그가 교회에 가입한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자 그가 고용한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었고 그는 마을에 있는 큰 성당의 지붕 수리 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크 축복사는 그

가 매우 용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를 배척했으며, 오이겐도르프에서는 더 이상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웃 마을과 잘츠부르크에서 매우 많은 일을 맡았으므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이 됨으로써 자녀들도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나는 천주교 계통의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우리가 침례받은 것을 알자 다음해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라고 헬가가 말했다. 이미 등록하고 수업료 분납금을 낸 루스도 학교에 갈 수 없었으며 수업료도 돌려 받지 못했다. “그러나 와드 회원들이 도와 주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을 친구로 삼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에게 새 학교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헬가가 말한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이 무정하지는 않았고 그저 이해하지 못했을 따름이라고 캔들러 가족은 말한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알기 위하여 조금 시일이 흐른 지금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캔들러 형제가 말한다.

곧 이 가족은 잘해 나갔고 딸들은 새 학교에 등록했다.

지금 캔들러 가족은 가게 위에 있는 새로운 큰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거기에는 소채원을 가꾸기 위한 넓은 뒷뜰도 있다.

헬가는 “이 교회는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예요. 나는 이 교회가 참되며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알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그녀는 선교사로 나간 여러 친구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들이 선교사로 일할 때나 마치고 귀환해서나 언제든지 오스트리아에 있는 교회를 강화시킬 것을 알고 있어요.”

루스는 와드에서 다른 젊은이들과 가까이 사귀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나는 그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며 내 자신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껴요. 와드에 있는 다른 젊은이들은 우리의 친구예요. 우리는 종종 잘츠부르크에서 그들을 만나 성을 방문하거나 정원을 산책하거나 상가에서 물건을 사기도 해요.”

스스로 실을 뽑음으로써 캔들러 가족은 1세기 전에 자기 나라에 보급되어 있던 전통을 생생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당시에는 모든 여성이 결혼 선물로 물레를 받았으며, 모든 사람은 집에서 만든 옷을 입었다. 페트러는 이렇게 말한다. “실을 뽑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내 친구들과 나중에는 자녀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캔들러 가족이 함께 일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참됨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교회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적용하는 것이 쉬워진다. “그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예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가르칠 것이며, 그들이 이해하도록 돕겠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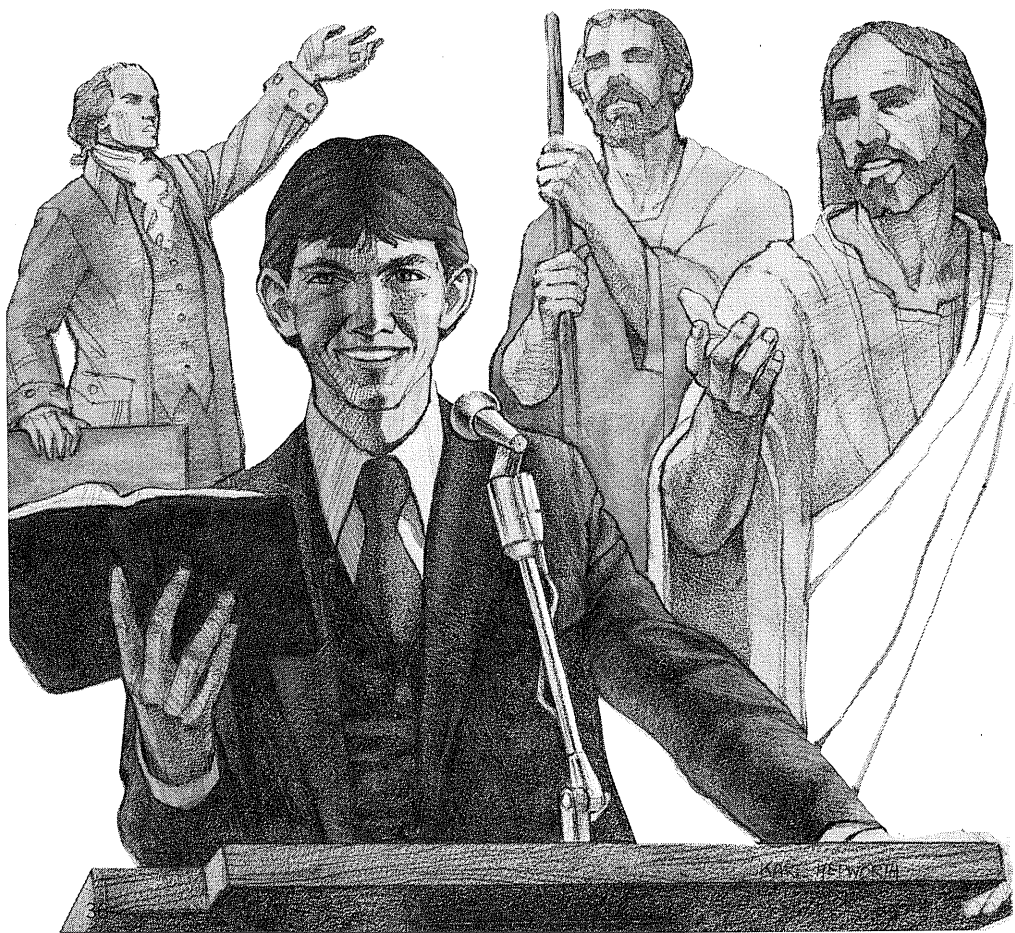
# 영감을 주는 말씀을 함

에릭 스티븐 및 게일 에스 그로우버

**청**중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은 성경공적인 연설의 첫번째 특성 중의 하나이다. 청중이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준 느낌과 메시지를 전할 때 부여 준 영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주일학교에서 영적인 말씀을 하거나 다른 모임에서 연설하든지 거의 언제나 적용되는 몇 가지 연설의 원칙이 있다.

“영혼을 감동시키고” 청중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에는 다섯 가지 공통점이 있다. (1) 즉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2)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과 흥미있는 사실이 포함된다. (3) 목표가 있다. (4) 성령에 감동되어 준비하고 전달한다. (5) 결론에 도달한다.

### 주의를 집중시킨

연설을 도입하는 첫 단계는 청중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브루스 바튼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재미있는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행 17 : 22, 23 참조)

이 사람들은 익살꾼과 당시의 유행을 창조하는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수많은 종교를 갖고 있었고 많은 신을 믿었으며 그 이상 다른 신을 믿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었다. 선교사가 거기에 갔다면 특별히 달갑게 여길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실제로 바울도 이런 사실을 인식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했을까?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시간을 내어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새로운 종교가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요란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을 것이다. 새로운 종교...그들이 거기에 대하여 무슨 관심을 가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무리의 사고 방식을 알았다. 요약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편 사람들이 내가 너희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가 보통의 모든 신과 여신의 제단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헌납한 제단도 있는 것을 보았

노라. 이제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일치되는 것에 관하여 말하려 하노라. 너희가 이름을 모르면서 경배하는 신이야말로 바로 내가 전파하는 하나님이다.”(브루스 바튼,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로세트 앤드 던랩 : 뉴욕 1924년 102-3페이지)

청중은 더 듣고 싶어했다. 바울은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켰으며, 이제 그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효과적으로 말을 시작하는 것 즉 청중의 흥미, 신조, 연령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는 흥미있고 적절한 것으로 시작했다.

### 계속해서 주의를 끌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는 이것을 계속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잘 계획된 이야기, 예증, 사실, 생각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것을 전파하는 대신에 간단한 이야기나 비유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의 생애를 바꾸었다.

“예수께서...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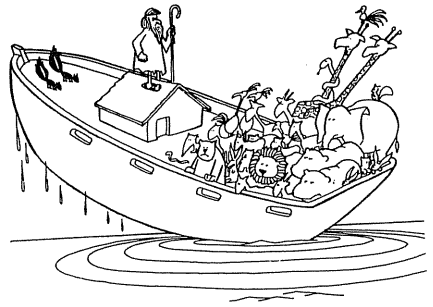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마태복음 13 : 1-3, 34)

그가 말씀하시는 동안에 어부와 농부 및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하였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마 13 : 3, 4)

그는 그 무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했으며 도둑놈 같은 까마귀가 열심히 일한 것을 망쳐 버린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들으면서 “아 이 선생은 그들이 직면했던 고난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좀 들어보자.” (브르스 바튼, “아무도 모르는 사람”, 107페이지)



이야기나 시는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요점을 청중이 기억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그 예로서 야망에 관한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것이다.

토미라는 소년이 손님에게 자기가 그린 그림...새, 개, 자동차, 집 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이런 것은 자기가 가장 잘 그린 그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 가장 잘 그린 것을 보여 주련?”라고 손님이 물었다. 토미는 “아 아직 그리지 않았는데요.”라고 말했다.

훌륭한 이야기는 성경과 여러분이 학교나 집에서 읽는 책에 얼마든지 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나 옛날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는 말씀에 따뜻한 정을 더해 주고 더 분명하게 해줄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복음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간증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간증도 강화시켜 준다.

### 목표에 도달할

그러나 중요한 요점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도록 한다. 단지 재미있게 하거나 웃기기 위해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청중을 혼란하게 만들 따름이다. 연설에는 목표가 있어야 하

며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이야기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전하고 싶은 개념과 사상이 너무 많아서 서로 공통점이 없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적합한 때에 했다면 모두 다 효과적이겠지만 관계없는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그 가치를 잃게 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어떤 농부가 방문 연사의 이야기를 들으러 공회당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야기가 너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잠시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에서 산책했다. 한 이웃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보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몰라요.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했다.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여 자기가 말할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새롭고 재미있는 사실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사상과 이야기와 내용과 기사를 수집해서 정리해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을 적는 일지를 보 관한다. 멀지 않아 여러분은 많은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며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 재미있고 즐겁게 될 것이다.

### 성령으로 말씀함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이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영혼에 불이 붙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연사가 기억해야 할 모든 권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고 말하는 동안에 주님의 영을 지녀야 한다. 합당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자기가 말하는 원리대로 사는 것도 꼭 필요하다. 또한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선천적으로 소질을 갖춘 연사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준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면 말할 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이다.

### 정시에 끝냄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언제 어떻게 연설을 끝내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의 말을 할 시간을 정해서 청중이 지루해 하지 않고 신선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여러분은 연사가 네 번이나 “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라고 말하고는 5분 내지 10분씩 더 계속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또한 답답한 것은 연사가 결론을 짓고도 끝없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썼다.

“몇 년 전 코네티컷의 하아트퍼드에서 어느 무더운 밤에 우리는 모두 호올리씨의 연례 보고를 들으러 교회에 갔

다. 그는 선교사로서 도움이 필요하지 만 도움을 청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며 순회했다. 그는 빈곤이 만연한 움막에서의 생활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위와 헌신의 예를 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백만장자가 기부할 때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하고 그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한 푼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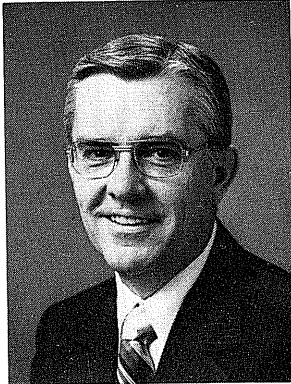
“나는 호올리씨의 말씀에 정말로 감동되었다. 나는 그가 청중을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웠다. 나는 호주머니에 400달러를 갖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몽땅 주고 더 주기 위하여 좀더 빌리고 싶었다. 온 사방에서 돈이 보였다. 그러나 그때 현금 쟁반을 돌리는 대신에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 점점 더 더워지고 우리는 점점 더 졸리게 되었다. 나의 열의가 점점 더 줄어들어서 한 번은 100달러로 줄었다. 나중에 드디어 현금 쟁반이 내 앞에 돌아왔을 때 나는 거기에서 10센트를 훔치고 말았다.” 여러분이 말을 끝내기 전에 청중이 듣는 것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한다. (일화의 보고, 에드먼드 풀러 저, 크라운 출판사: 뉴욕, 1942년, 58-59페이지)

연설은 알아듣기 쉽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하며,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발표하는 사상은 듣는 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줄 것이며, 여러분은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웅변을 통하여 주님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봉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



# 1988년의 지도자인 여러분

엘 러셀 벨러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1978년 5월 16일 브리감 영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연설한 것에서 발췌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감동을 준 일 즉, 지금부터 10년 뒤의 우리 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1978년에서 빼어 1988년의 교회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1988년의 교회는 주로 지상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바 의로운 역할을 이행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100개의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데 1830년부터 1928년까지 98년이 걸렸고 두 번째로 100개의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데는 1928년부터 1952년까지 24년이 걸렸습니다. 1960년까지는 300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1964년에는 400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고 1970년에는 500개의 스테이크

가 조직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600개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고 1975년에는 700개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1977년에는 800번째 스테이크가 생겼고 1978년 3월 19일에는 900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1979년 2월 18일에 1000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음)

교회에 일년에 100개씩 스테이크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제시한 숫자로 나타난 것보다 그 증가율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기 위하여 1988년에는 교회에 약 2500개의 스테이크가 있을 것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1988년에 스테이크 부장이 될 2500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제 1 보좌와 제 2 보좌 및 스테이크 서기와 집행 서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30,000만명의 고등 평의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각 스테이크에 평균해서 10개의 단위 조직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오늘날 스테이크 내의 평균 수치입니다... 25,000명의 감독, 제 1 보좌, 제 2 보좌, 집행 서기, 서기, 장로정원회 회장 및 그들의 보좌, 칠십인 정원회 회장, 대제사 그룹 지도자 및 그들의 보좌, 상호부조회 회장 및 그 보좌, 초등협회 회장과 그 보좌 및 그 외의 여러 역원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

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1988년에 맡기려고 하시는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19세부터 25세 사이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 여러분은 우리 스테이크 부장 중에서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교회를 관리하는 감독이 20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자권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영원한 계획에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는 여러분의 권리와 장자권과 특권은 매우 거룩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온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중요한 성약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매우 깊이있게 영혼을 갈구하는 태도로 삶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고 계시는 약속과 축복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활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깨끗이 해결해야 할 범법 사항을 뒤로 미루어 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갖고 계시는 부름을 성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로 3주 전에 스테이크 부장단을 다시 조직하기 위하여 혼자...나와 주님과 지역 대표와 함께 갔습니다. 직접 스테이크의 모든 신권 지도자를 접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사

람을 알아내는 것은 두려운 과제입니다. 나는 금식하고 기도했으며 주님의 인도를 간구했으며 그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모든 신권 지도자들과 접견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님을 압니다. 어디에서 형제님을 알게 됐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러드 형제님, 저는 형제님을 단 한번밖에 뵈 적이 없으며, 그것도 11개월 전에 단 이삼분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을 열고 걸어 나가자 바로 저 형제가 스테이크 부장이 될 사람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주일날 아침 총회에서 그에게 부름을 주고 지지한 다음에 그에게 간증할 시간을 주었는데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웃 스테이크에서 각각 스테이크 축복사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그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나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어머니는 “애, 너는 나에게 말해 주

**1988년의 교회는 주로 지상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바 의로운 역할을 이행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 않아도 안다. 넌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시 반에 부엌에 있는데 성령의 권제로 방금 내 아들이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의 아버지는 가게에 나가 계셨는데 집에 오자 부엌에 들어서면서 “여보, 나는 우리 아들이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오!”라고 말씀하셨다.”

스테이크 부장이라고 해서 누가 감독이 될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총관리 역원은 누가 스테이크 부장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 대관장은 누가 총관리 역원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계시를 믿고 여러분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을 아시게 된다고 믿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선교사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믿고 신뢰하시며, 여러분이 헌신하고 주님의 편에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오늘 교회의 모든 젊은 남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일상 생활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살펴 보시고, 또한 여러분은 봉사하고 인생에서 꿈은 우선 순위를 지키는 능력으로 성실성을 나타내 보이게 되면, 언제든 고등 평의원, 초등학교 회장, 상호부조회 회장, 감독 및 스테이크 부장 등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서는 그 책임을 진 신권 지도자

에게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었음을 알려 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맺은 성약에 합당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영혼의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세상의 구세주와 참된 관계를 맺게 되기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과 훌륭한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생애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금식과 기도와 근면하고 헌신적인 봉사가 필요하며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는(교경 58:27 참조) 사람의 행복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드릴 때, 자신이 말씀드리는 용어에 대하여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들과 내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며,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칠십일 제일 정원회에 부름을 받은 직후에 캐나다에 있는 나의 선교부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는 모든 신권 지도자를 위하여 동부 캐나다에서 성회를 가졌습니다. 대관장단, 십이사도 전원과 십이사도 보조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신권 권능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 모임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성회가 끝나 나는 대관장단을 그들이 묵고 있던 호텔로 모셔갔습니다. 대관장단은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각기 방으로 갔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의 비서는 호텔의 카운터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로 나는 그에게 가서 킴블 대관장님의 열쇠를 내가 갖다 드려도 좋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열쇠를 건네 주었습니다. 나는 9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홀로 내려섰습니다. 거기에서 킴블 대관장님과 태너 부대관장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대관장님, 여기 열쇠를 가져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의 독특한 사랑에 넘치는 표정으로 나에게 고마운 뜻을 표시했으며 그때 태너 부대관장님이 내 팔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러셀 형제, 들어와서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교회 대관장님과 함께 하루를 끝내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상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경험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킴블 대관장님과 함께 태너 부대관장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롬니 부대관장님과 다른 총관리 역원들도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우리가 침대 옆에 무릎꿇고 앉으니, 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태너 부대관장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아시기라도 하듯이 “대관장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언자가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기도에서 위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전에 결코 느끼지 못했던 성령을 느꼈으며, 아마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는 마치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말씀하시 듯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였으나, 그 중에는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한 일을 아버지께서 받아 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기도의 원리에 관하여 내 가슴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하루 동안 한 일을 주께서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루를 끝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의 사명을 떠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위대한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일이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난 11개월 동안 이 위대한 교회의 권세와 위대함에 압도당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필리핀, 괌, 홍콩, 영국 및 미국 전역과 캐나다의 일부에 다녀 왔으며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나의 간증은 주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급속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고 받는 신권 지도자들의 헌신에 정비례하여 교회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접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는 선교사로 나가려는 한 젊은이를 접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또한 특히 선교사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물문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까? 그 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으며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교 사업에 뛰어들든 생활 전선에 뛰어들든 간에 많은 장애를 경험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은 이유이며 우리가 진실로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도 여전히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그가 숲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으며, 그가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물몬경을 번역했다는 확고한 간증을 마음속 깊숙한 데서부터 쌓아 올렸다면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과제를 아직 다하지 못했다면 “급히 서둘러서 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물몬경을 읽고 그것에 대하여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사명과 물몬경의 거룩한 본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근거를 둔 확고한 간증을 확립하라는 나의 권고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지를 행하면 1988년이나 그 이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관리하는 신권 지도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장로 정원회 회장이 필요하니 와서 그 부름을 수행할지이다. 상호부조회 회장이 필요하니 와서 그 부름을 수행할지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한 준비를 다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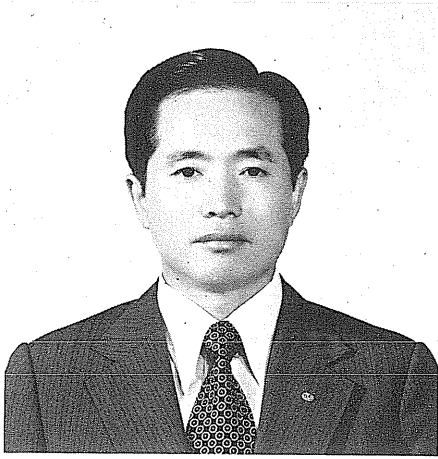
교회가 내 생각대로 1988년에 활기차고 성장하고 팽창하여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중의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크 부장단, 감독단, 스테이크의 지도자, 고등 평의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중의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이 본부 평의회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조금도 놀라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이 왕국은 1978년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인도하기 위해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1988년의 새로운 영역으로 번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리던 날 즉 세상의 구세주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지상에 오셔서 왕중왕으로서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실 때에 대비하여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총관리 역원들은 이 교회의 선한 젊은이들로 인하여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어떤 스테이크에서나 여러분같은 얼굴을 봅니다. 얼마나 나에게 다시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는 우리가 선한 우리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 하고 나의 온 영혼의 모든 권세를 다 하여 부탁하노니, 여러분의 생활에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지금 감독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더 강하게 서약할 것이 있다면 오늘밤 일지에 적으십시오. 더 나아가기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이렇게 서약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상에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시킬 일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하여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마음에 평화를 간직하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추수할 때로다”

서울 스테이크 부장

최 욱 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해마다 풍년이 들게 하시고, 많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슬기를 주셔서 우리의 기술을 세상에 알려며, 자조 자립의 정신을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땅에 말일에 회복된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주시고 이 의로운 봉화불은 잔디밭을 구르는 불덩이와 같아서 구르는 곳마다 불을 부쳐주고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깊은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었습니다. 시온의 스테이크(교구)만도 다

섯 개를 조직하여 주시고 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떠나고 있고 또한 서둘러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재미 동포들 사회에 까지도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져 활발히 전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축복은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놀라운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각적으로 물질만능주의적인 못된 생각과 배금사상이 고조되어 주객이 전도된 감을 주는 기형아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풍토가 깨지고 가정정이 파괴되는 슬픈 사실은 세계가 겪고 있는 고민이요 사탄의 작난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저주를 찾고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길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 1:39)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도와서 불사 불멸과 영생으로 손잡아 이끄러 주십니다. 개인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표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교성 18:10)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들 개인을 돕기 위해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네가지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배우기 위함이니 진리의 말씀을 배워 영생으로 인도되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경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온 목적이 기쁨을 얻기 위함일진대 이 기쁨은 진리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배운다 함은 무지로부터 해방시킴이니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 지역 지도자 메시지

없느니라. (교성 131:6)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은은 영생으로 인도되는 기쁨이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를 돌보이니 교회는 성도들을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모든 복지를 돌보아 줍니다. 모든 성도는 자조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주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킵니다.

넷째는 신전 의식을 준비시킴이니 신전 의식을 통하여 승영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마지막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위한 신전 의식은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는 신전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불완전한 한 사람도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줍니다. 생동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법범과 슬픔을 이기고 승영의 단계에 이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우리의 삶의 방법을 옳게 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생활 환경이나 세부 계획을 사전에 알 수는 없으나 좁고 협착한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길을 택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배를 모는 선장이 어느 항구를 향해 나아가야 할 지를 모른다면 한 사람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목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발을 내 디딜 때 옳은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지 부식간에 습관이 들고,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죄가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들이 갈 길을 나타내 주는 말뚝을 일찌기 박아야 합니다. 그 말뚝은 “이것을 하겠다”와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두 가지 결의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일반적인 활동, 표준, 영적인 목표, 개인 프로그램에 모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젊은이는 어린 시절부터

계획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좋은 점을 발견하고, 교육, 선교 사업, 교회 봉사 등에서 뚜렷한 목표를 일찌기 세워 생활하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고 목표가 정해지면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고 담배를 피우라는 첫번째의 권고에 “아니요”라고 말 할 수 있고, 술을 권하는 말에도 “아니요”라고 말 할 수 있으며, 캄캄하고 위험한 장소로 차를 몰고 가도 좋겠느냐는 권유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으며 부도덕한 관습에 짓게 하는 첫번째의 부당한 권고를 받을 때에도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가 온 후에 생기는 무지개와도 같다. 일부러 이것을 잡으려 할때 자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탈하지 않고 따를 때 구태여 그것을 추구하려 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 머물게 된다. “행복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그 답이 너무도 간단하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사람이 많다. 행복의 진수는 깨끗하고 간결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열려있다. 계획없이 인생을 살아 가는 사람은 별이 없는 밤하늘을 보면서 항해하는 선원이나 나침반 없이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다. 최대의 행복에 대한 확신, 지상 생활, 승영, 영생에 대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완전히 일치된 생활을 할려고 계획하여 정해진 우리들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 복극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땅에 회복된 복음의 씨를 뿌려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보라, 발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보라, 힘을 다하여 낫질하는 자는 창고에 쌓아 두는 자니, 파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육을 구원시키느니라.”(교성 4:4)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서는 열심히 낫질하는 자를 축복하시리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